

## 지역 소식통

고창군, 스마트 관광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고창군이 총사업비 38억원을 투입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관광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고창군 지난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타 협약을 체결하고, 5월 본격적으로 추진해 여덟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스마트 관광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지난 2019년 발행한 '인천 적수사례'와 2020년 '수돗물 칼띠구(유종)' 등으로 드러난 수도시설 관리의 문제를 개선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가 구축되면 고창군 관내 수돗물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계측기를 통해 상수도 수질과 수압·관망·현황을 체계적으로 수집과 분석이 가능해진다.

소규모 유량계와 수압감시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각종 수돗물 사고 재발 방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장=김영식 기자

부안 계화면, 주택화재가구  
재능기부 주거환경개선

최근 주택화재가 발생했던 부인군 계화면 이모씨 집에 재능기부를 통한 집수리가 이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부안군 계화면적십자봉사회 최민자 회장은 재능기부를 통해 천장·창호 및 도배·장판을, 전라북도 적십자봉사회에서는 이불장파 서랍장(5단)을 후원해 주었다.

주택화재로 딱딱한 상황에 계화면 및 종형복지팀에 찾아와 눈물로 도움을 요청했던 이씨는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어 절망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다"며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했다.

계화면적십자봉사회 최민자 회장은 "재능기부를 통한 작은 봉사로 희망과 다시 살아갈 힘을 줄 수 있어 너무 보람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전동차 새마을호 첫 출고

다원시스 정읍공장, 신형 총 208량 3473억원 수주… 2022년까지 한국철도공사 납품 예정

정읍시 입암면 철도농공 단지에 들어선 (주)다원시스 정읍철도공장에서 신형 간선형 전동차가 첫 생산 됐다.

이번에 생산된 신형 간선형 전동차 EMU-150(신형 새마을호)는 2019년 한국철



코레일 EMU-150 신형 간선형 전동차 출고 기념식

이날 출고식에는 유진섭 시장과 윤준영 국회의원, 이상길 정읍시의회 부의장 (주)다원시스 박선순 회장 코레일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전동차 출고를 축하했다.

출고식에서는 출고 차량의 특장점 소개와 기념사·축사·출고식 축하 축포·출고 차량 시승식 등이 진행됐다.

신형 간선형 전동차 EMU-150의 설계 최고속도는 165km·운행 최고속도는 150km로 4량 차량과 6량 차량 두 가지 형태로 제작됐다.

4량은 정원 264명, 6량은 정원 392명 규모로 제작됐으며, 기존 차량에 비해 성능과 디자인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는 "최초 상당 당시 매출은 300억 원이었으나 올 해 목표는 상장 당시 매출액의 10배인 3,000억 원으로 설정했다"며 "10년 안에 다시 10배로 늘린 3조원을 달성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 다원 유니버스로 재탄생하게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지역 내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 중심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 쾌적한 교통 행정서비스 제공

정읍시, 10억원 투입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 대폭 개선

정읍시가 지역 내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 중심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시는 버스 승강장 환경정비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다양한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비 3억6,000만원으로 노후화된 기존 시내버스 승강장 30개소를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각양각색의 승강장 디자인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판단 하에 정읍시 고유 디자인을 적용하면 서 비비드까지 막아줄 수 있는 정읍형 평화 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사업비 2억9,000만원을 투입해 겨울철 시민들이 따뜻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보건소, 건강·금연문화 조성 나서

정읍시보건소는 지난달 31일 제35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담배! 그 시작과 끊은 흡연파티입니다'를 주제로 흡연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세계 금연의 날은 매년 5월 31일로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효과적인 금연 정책을 전파함으로써 담배 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기념일이다.

이번 캠페인은 흡연의 유해성을 널리 알리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읍시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또 세계 금연의 날 기념으로 진행한 금연포스터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 281점 가운데 최우수작 1점, 우수작 2점, 장려 3점, 입선 4점을 선정, 정읍시장

상을 표창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신축공사' 본격 착공

읍사무소·가족센터·돌봄센터 복합화… 행정민원등 가족행복 서비스 제공



고창군민들의 행정민원 편의제공과 다양한 가족행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신축 공사가 본격 시작된다.

의실 아동돌봄·돌아이시설 / 3층에는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상담·교육 시설이 계획돼 있다.

기본적인 행정·민원 업무외에도 돌

봄, 공동육아, 가족상담·교육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활동의 대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장=김영식 기자

## 고창군, 베드론직파 현장 연시회 개최

고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가 지난달 30일 고창군 아산면 남산리 들녘에서 농업생산비 절감과 농업효율성을 높여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드론직파 현장연시회'를 열었다.

특히 최근 연구에선 벼 재배시 못자리 없이 드론으로 직접 파종해 노동력을 최대 90%, 경영비를 최대 85%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 비용역시 기계이昂비비 120만원/

ha당 절감하고, 정부 탄소중립에 대응한 저탄소농법으로 알려져 있다. 파종 이후에도 비료 살포, 병해충 방제 등 드론을 이용한 생력재배로 작업효율을 높여 쌀 생산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크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현행열 소장은 "농업인들 간소화 노령화 위기에 대응하고 저탄소 농업기술 확대를 위해 드론직파, 건답직파, 무논직파 등 벼 직파 및 생력재배기술을 지속적으로 보급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장=김영식 기자

## 지구를 사랑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